

감자·쌀값 '깡충'... 집밥 해먹기도 벅차네

(66.9%) (29%)

3월 농수축산물 물가지수 광주 2.6%·전남 3% 상승

아파트관리비·외식비 등 인건비 비중 큰 서비스 물가도 올라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외식비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식비 부담이 가중,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각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4%를 기록한 이래 최고로, 전남 역시 지난해 12월 1.8%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농수축산물 물가지수는 지난

해에 비해 2.6% 상승했고, 전남지역도 전년 대비 무려 3.0%나 올랐다.

여기에 광주지역의 경우 신선식품지수가 전년대비 4.8%, 전월대비 2.4%가 급등해 식탁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가격은 전년에 비해 66.9%나 치솟았고 호박 역시 62.9%가 올랐다. 오이와 시금치도 각각 41.6%, 36.1%가 상승했다. 수산물에서는 오징어와 고등어가 각각 37.4%, 18.2% 올랐다.

여기에 쌀(29%)과 고춧가루(48.3%) 등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도 줄줄이 올랐고, 구내식당 식사비(10.5%)를 비롯한 전체적인 외식·숙박비(3%)가 상승하며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전남지역 역시 감자(75.9%), 호박(59.



85), 생강(57.9), 오이(27.5%), 무(25%), 쌀(29.8%)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저장물량이 감소하고 파종기 때 기상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쌀 역시 지난해 수확기부터 산지 쌀값 상승세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또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여파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 관리비도 각각 9.9%, 3.6% 상승했으며, 가사도우미료는 6.7%, 6.9%씩 올랐다. 이외 설비수리비와 간병도우미료, 이삿짐운송료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서비스물가 상승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나, 채소류·축산물 가격과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강세 품목 물가관리를 강화,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간 괴리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무·감자 등 가격 강세 농산물 조기출하·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지속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농산물 수급관리 기반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505.61 (-9.77)
- ↑ 금리 (국고채 3년) 2.24% (+0.02)
- ↓ 코스닥 871.03 (-4.92)
- ↑ 환율 (USD) 1076.10원 (+8.10)



광주국세청 목표 세무대리인 신고설명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일 목표 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가졌다.

광주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 상황 및 소득,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해 신고에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홈택스 신고 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 단계를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특히 소규모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집 전화와 휴대전화 한 통(1544-9944)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광주, 전남·북 권역별 세무대리인 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오는 4일에는 광주지역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불거리 많은 전남으로 오세요” 아시아나항공, 인도네시아 여행사 초청 명소 투어



아시아나항공은 2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2018년 인도네시아 주요여행사 스터디투어'에 참가한 23명을 맞이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불거리 많은 전남으로 오세요” 아시아나항공이 인도네시아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 전남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8년 인도네시아 주요여행사 스터디투어’를 2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의 17개 대형 여행사의 단체 여행상품 판매 책임자를 23명은 이날 입국, 5일까지 국내 명소를 둘러볼 계획이다.

이들은 2개 그룹으로 나뉘어 1그룹은 전남·북 등 서남권을, 2그룹은 충북, 대구, 부산 등 동남권을 둘러본다.

전남지역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 담양 죽녹원, 보성 녹차밭, 여수 등의 관광자원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소 절반 “내년 최저임금 동결 원해”

중소기업협회 설문...서비스업 78.5% “경영 어렵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3월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

(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답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했다. 이런 비율은 지난해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많이 높은 것이다.

이어 '3% 이내'(19.1%), '3~5% 이내'(18.4%), '5~8% 이내'(8.8%), '8~10% 이내'(3.5%) 순으로 나타나 85.7%가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3.5%)보다 서비스업(54.1%)이 더 '동결'을 원했고, 영세할수록 '동결' 비중이 높았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올해도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10곳 중 8곳은 전체 인건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전체의 66.6%로 나타났다.

2020년 1만원 시 주된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예상된다.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나 됐다. '사업종료'를 검토한다는 기업도 제조업은 11.5%, 서비스업은 19.1%였다.

1만원이 되는 적정시기에 대해 '2020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불과했다. '2022년'(23.3%), '2024년'(23.2%), '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생명 전남총국 '9988 건강보험' 판매

NH농협생명 전남총국(총국장 박정철)은 2일 무안 전남서남부채소농협(조합장 전영남)에서 '9988 건강프로젝트 선포식'을 열고 상품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9988NH건강보험 상품은 NH농협생명 가가의 달을 맞아 출시한 것으로, 만15세부터 80세까지 유병자,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객의 나이, 니즈, 건강상태에 따라 자유자재로 상품을 구성해 가입할 수 있는 100세 만기 다제다능한 건강보험으로

농협생명이 올해 집중할 주력상품이다. 전남총국은 이날 전영남 조합장의 1호 가입을 시작으로 전남 농·축협 조합원과 고객에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철 총국장은 “고객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 고령자와 유병자가 많은 전남지역에 적합한 건강보험”이라며 “전남지역 농업인과 가족들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9988 건강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